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 봄의 낭만 만끽

특별한 철길 산책 ‘전주 이팝나무 축제’ 개막… 5월 3~6일 시민·관광객에 개방

전주시가 도심 속 특별한 꽃길 산책이 가능해 봄철 명소로 자리 잡은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을 지난 28일부터 다시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한다.시는 28일 팔복예술공장 인근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주진성 한국철도공사 전주역장, 남관우 전주시의장, 시·도의원, 팔복동 주민대표를 비롯해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전주 이팝나무 축제 개막식’을 열고 2주간의 특별한 철길 산책의 시작을 알렸다.축제는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전주시장 및 참여 내빈의 인사말,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축제는 4월 28일부터 27일,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된다.구체적인 개방구간은 금학교에 위치한 건널목이 주 입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린대로에서 신북로까지 630m구간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경관조명이 설치된 금학교부터 신북로까지 400m구간이 시민에게 개방된다.개방시기에만 해당 구간 철길 내부에서 이팝나무 감상과 촬영이 가능하며, 안전을 위하여 개방기간 및 구간

외 출입은 금지된다.안전관리 및 동산이동을 위한 안전요원, 신호수 등을 배치하고 자갈에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안 내판과 아자매트를 설치했으며, 이동이 편리하도록 팔복예술공장과 기린대로 부근에 출입문을 설치했다.또한 이팝나무 관람을 하러 온 관광객들은 구렛들3길 28번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과 개방을 위해 빌린 BYC임시주차장(구렛들3길 35)을 이용하면 된다.행사 기간 중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앙리 마티스 & 라울 뒤피 展’이 함께

열려, 이팝나무 철길과 함께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매력을 더한다.전주시는 이팝나무 철길 개방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일상 속 협화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매년 콘텐츠를 개선하고,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소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의 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처음 개방한 이팝나무 철길이 전주의 대표적인 봄 명소로 자리 잡았다”면서 “더 풍성한 콘텐츠와 개선된 시설로 다시 문을 연 만큼,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봄의 낭만을 만끽하실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마음치유센터는 생명력 넘치는 봄을 맞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으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에게 봄과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자연 기반 힐링 프로그램인 ‘치유의 정원’ 운영을 시작했다.

자연 힐링 프로그램 ‘치유의 정원’ 운영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숲·정원 배경으로 자연과 교감·치유

전주시 마음치유센터는 생명력 넘치는 봄을 맞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으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에게 봄과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자연 기반 힐링 프로그램인 ‘치유의 정원’ 운영을 시작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이번 ‘치유의 정원’ 프로그램은 지난 1일부터 4주간 △한옥마을 작가정원 △월드컵경기장 작가정원 △건지산 둘레길 △완산 도깨비 숲 등 전주시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를 순회하며 숲과 정원을 배경으로 참여자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연물을 활용한 오감 자극 체험 △자연소리 향기에 집중하는 이완 명상 △추억을 소환하는 자연 악기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어린 시절의 감성을 되살리는 체험은 참여자들로부터 “마음이 많아

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실제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울척도 검사(PHQ-9) 결과 평균점수는 6.4점이었으나 종료 후 3.5점으로 감소해 평균 -2.9점(-48.3%)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치유의 정원은 앞으로도 매월 신청자를 모집해 계절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며, 감각을 일깨우는 자연 교감 활동부터 숲길 산책, 면역력 증진 체험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상 속 다양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도로 정비로 쾌적한 주행 환경 조성

포트홀 6310여개소 정비 완료… 일 평균 40개소 지속 보수 중

전주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시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급증하는 포트홀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 16개 정비팀을 운영해 포트홀 정비를 시행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6,310여 개소(완산구 3,467개소, 덕진구 2,843개소)의 포트홀 정비를 완료했고, 현재도 12개 팀(구청별 자체 2, 단가 4)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 평균 40개소의 포트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이와 함께 노후도로의 근본적인 개

선을 위해 33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재포장 공사도 적극 추진한다.주요 노선은 △완산구 서원로, 전주천동로, 용리로, 거마평로 등 10개 노선 △덕진구 혁신로, 중동로, 들사평서로, 전주천동로 등 13개 노선으로, 총 23개 노선 중 7개 노선(완산구 고사평3길, 어은터널 교차로, 모악로, 서곡1길, 따박골9길, 전주천동로, 서원로)이 완료되고 잔여 16개 노선도 포장될 예

정이다.시는 이번 집중 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추가 정비 대상 노선을 선정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도로 파손 및 노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며 “신속한 포트홀 정비와 선제적인 도로 재포장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미디어아트 관광시설 ‘완산벙커’ 적극 홍보

전주시, 한옥마을·완산꽃동산 등 찾아 홍보캠페인 전개



전주시는 봄철 관광객이 붐비는 한옥마을과 완산꽃동산 등을 찾아 오가는 방문객을 상대로 완산벙커의 역사와 특징 등을 알리는 현장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전주시가 버려진 방공호에서 미디어아트 관광시설로 재탄생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홍보를 위해 대표관광지를 찾았다.전주시는 봄철 관광객이 붐비는 한옥마을과 완산꽃동산 등을 찾아 오가는 방문객을 상대로 완산벙커의 역사와 특징 등을 알리는 현장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시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방문객을 상대로 완산벙커를 소개하는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홍보캠페인에 참여한 시청 직원들은 완산벙커를 소개하는 홍보용 어깨띠를 착용하고, 완산벙커의 위치와 특징, 역사, 할인 행사 등 각종 정보가 담긴 리플릿을 한옥마을을 오가는 방문객들에게 전달하고 설명

했다.시는 한옥마을에 이어 주말(26~27일)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는 완산꽃동산 일원을 찾아 홍보캠페인을 이어갔다.또한 한옥마을 내 식당, 제과점 등 많은 사람이 찾는 상업시설에도 리플릿을 배포해 관광객 유입이 많은 공간을 중심으로 완산벙커를 적극 알리는 데 주력한다.시는 현장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완산벙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내비쳤고, 일부는 리플릿을 받은 직후 관람일정을 잡는 등 적극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이와 관련 완산벙커는 지난 1973년 전시 행정 대피용 목적으로 만들어져 2008년 용도를 잃고 버려진 방공호를 전주시가 재활용하여 새롭게 탄생시킨 곳으로 ‘폐쇄된 완산벙커와 연결된 다중우주를 관광객이 탐험한다’는 테마의 미디어아트 문화 관광시설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채택

장병익 의원 대표 발의

전주시의회가 미래 교통 혁신을 선도할 도심항공교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 제도를 기한 마련에 나섰다.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병익 의원(완산, 중화산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실행 조사 △인력 양성 및 기업 유치 지원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장병익 의원은 “도심항공교통은 전주시의 미래 성장동력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미래 산업 기반 조성은 물론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